



언제나 현장에 있는 태양공업사

이종길 사장

경기 이천시 진리동 소재의 태양공업사는 돈사를 비롯 돈사 내부 기자재 모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돈사시설시 필요한 빔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2공장(부발읍 응암리 소재)을 신축하고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튼튼하게 돈사를 지어주고 있다.

4명의 인원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사가 있을 시는 20여명의 전문인력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하여 인건비의 최소화를 실현하고 있다. 취재시에도 강원도의 공사현장에 고정 직원

태양공업사 이종길 사장(58세)은 자택이 공장내에 있어 언제든지 공장을 찾아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

철저한 인력 관리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종길 사장은 단지

2명포함 10여명의 직원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다.

철두철미한 근면성과 소문난 손기술

75년도 제일중축의 창업멤버중의 한 사람이었던 이종길 사장은 “돼지를 기르고 싶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돼지를 길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제일중축에 있을 당시 국산이 외국제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여 국산제품의 고급화를 이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태양공업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웠겠지만 이종길 사장은 지금의 태양공업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피땀어린 노력과 고생의 역사가 있었다. 아홉 살의 어린나이에 부모를 잃어 할머니 슬하에서 거의 고아로 크다시피 하였으며, 65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66년에 맨주먹으로 지금의 이천에서 자동차 정비를

그는 병원을 나오자마자 기브스를 한 채로 다시 부하직원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날안에 모두 일을 끝마치고야 말았다. 요즘 사람들 같아서는 핑계로 몇 달은 집에서 놀면서 월급을 받으려 했을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2~3년 동안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제일중축이 설립되면서 축산업에 눈을 떠 양돈업계와 인연을 맺고 자신의 손재주를 덧붙혀 현재의 태양공업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자기 실력과 능력에 맞
추어야만 자신도 편하고
인정도 받을 수 있죠”**

68년 그가 이천 영동
공업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때였다.

4명의 부하직원을 데
리고 지금도 있는 선진
원종의 돈사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루가 다르게 축
사 건물이 지어나가고 있었
다. 이날은 10M의 거대한 철조
물을 22M 높이의 천정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 도르레를 이용해 4명이
서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모두 힘을 합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순
간 철조물을 매달았던 로프가 무게를 이기지 못
하고 그만 끊어져 버린 것이었다. 아차! 하는 순
간에 철조물은 모두의 머리위로 떨어져 내렸고,
이종길 사장의 한 쪽 팔에 부딪치면서 핑음을 내
고 바닥에 떨어졌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별다
른 상처를 입지 않았으나, 이종길 사장은 손목과
팔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는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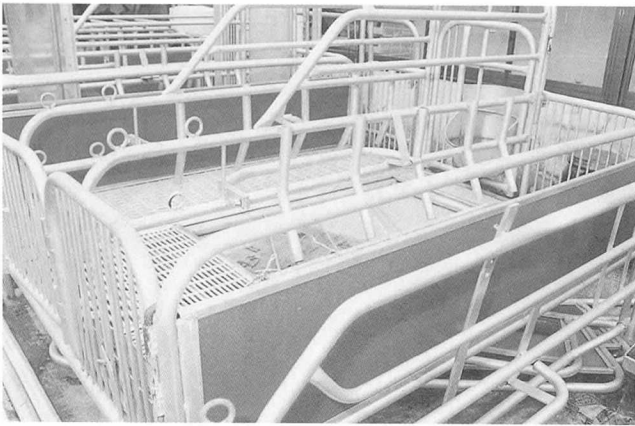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 쪽 팔 전체에 기브스를 하
고서야 병원을 나오게 되었다. 그는 병원을 나오
자마자 기브스를 한 채로 다시 부하직원들을 이
끌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날안에 모두 일을
끝마치고야 말았다. 요즘 사람들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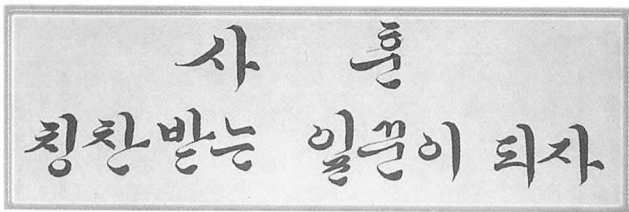
서는 핑계로 몇 달은 집에서 놀
면서 월급을 받으려 했을 것
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성
공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그가 손재
주가 뛰어남을 알게 해
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가 젊은 시절
군대에 있을 때다. 군대
에서 기갑병으로 탱크를
운전하고 있던 이종길 사
장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
사를 위해서 9월부터 훈련에
들어갔다. 그 당시 군대에서는 기

름을 이용해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 주
먹구구식으로 만든 버너로 밥을 해 장병들에게
공급하였다. 그러나 훈련을 시작하면서 야외에서
의 버너의 작동이 시원찮아 밥이 설되었고, 훈련
을 하는 장병들이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군모와 군화, 그리고 군복바지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
다. 항상 입고 있는 이 복장은 군대의 5분대기조처럼
항상 현장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태양공업사에서 제작하는 분만틀은 가운데에 콘크리트를 넣어 만듦으로써 유용성을 높혀 타 제품과 차별화를 하고 있다.



▲빛바랜 사훈은 이종길 사장의 책임감있는 삶을 대신 말해주는 듯 하다.



▲먼저간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파란만장한 지난 삶과 함께 회한을 느끼게 한다.

약방의 감초란 별명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이종길 차장은 보다못하고 자신의 부대 취사반에 가서 직접 손을 본 버너로 밥을 기가 막히게 해내어 동료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다. 이 사

실을 금방 모든 부대로 알려지고, 중대장의 인정하에 이 사장은 훈련은 많고 부대의 취사반을 찾아다니면서 훈련기간 내내 버너를 손봐주면서 그의 손재주를 널리 알렸다. 이종길 사장은 “군대나 사회나 자기 실력과 능력에 맞추어야만 자신도 어느정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웃으며 옛 추억을 되살렸다.

재정은 탄탄하나 계속되는 불황으로 같이 어려움 느껴

이종길 사장은 자신이 아는 바가 적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만년 경리로 있는 부인의 헛점 없는 뒷받침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15만원으로 시작한 기업이 이만큼 올라선 것은 근면한 생활과 관리체계의 합리화가 뒷받침 되었다며, 여태껏 그럴싸한 집한채 따로 없지만 공장내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항상 공장내에서 해 온 생활이 지금의 IMF에도 견딜 수 있는 태양공업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일 것이라 한다.

“우리 태양공업사는 재정이 탄탄하나, 공사를 해도 농장에서 계약금을 줄 돈이 없다. 공사를 해 봐야 돈을 받지 못하니, 양쪽 다 무너지게 생겼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던 둘째아들이 전번 팜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2~3년 후에는 태양공업사를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일임시키고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이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취재 : 조진현 養豚>